

세계적 양산의 환경적인 고품격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함평 다이너스티 컨트리 클럽

탄력적인 그린피 시스템 운영

- 인터넷회원 예약시
- 평일 최대 3만원, 주말 최대 5만원까지 할인가능
- 예약 : www.hpdynasty.co.kr 061)320-7700, 7714

대륙간 대항 여자골프 렉서스컵 오늘 개막



한국·대만·일본 선수들로 꾸러진 아시아팀과 유럽·미국·호주 선수들로 구성된 세계연합팀 12명씩이 출전해 벌이는 골프대회로 7일 호주 퍼스에서 열리는 렉서스컵 개막에 앞서 6일 양팀 선수들

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첫 날 경기는 포섬방식으로 진행된다. ▲왼쪽 사진 아시아팀 = 왼쪽부터 아야코 우에하라(일본), 캔디



카스트레일, 안젤라 박, 브리타니 린시컴, 마리아 요로스, 니키 캔 벨, 안니카 소렌스탐, 나탈리 칼비스, 수잔 페테르스, 크리스티 커, 모건 프레셀, 스테이시 프라마나수드.

▲오른쪽 사진 세계연합팀 = 왼쪽부터 카트리오나 매튜, 니콜

매카시·올리에 한국행 무산

축구 대표 감독 선정 원점으로

소속팀 잔류를 선언한 마이클 매카시(48) 올버햄프턴 감독에 이어 한국 축구대표팀의 차기 사령탑 후보로 유일하게 남아있던 제라르 올리에(60) 감독의 한국행마저 무산됐다.

대한축구협회 유영철 홍보국장은 6일 오후 “올리에 감독과 최종협상을 벌인 결과 프랑스축구협회와 가족의 반대로 계약 성사 직전에 무산됐다”며 “기술위원회가 협상 결렬에 대비해 준비한 매뉴얼에 따라 후속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 국장은 “올리에 감독의 경우 한국 대표팀 사령탑에 대한 관심이 커져 계약이 마무리되는 듯 했지만 막판 프랑스 축구협회의 반대뿐 아니라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하는 가족들의 반대가 예상외로 컸다”며 “매카시 감독 역시 계약 직전 소속 구단의 반대가 심해 결국 팀 잔류를 선택하면서 무산됐다”고 설명했다.

민있던 두 후보를 한꺼번에 잃은 축구협회는 일단 기술위원회가 대표팀 사령탑 후보군으로 정해놓은 국내파 및 해외파 사령탑 파일을 활용해 후임 감독 선임절차를 계속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기술위원들도 긴급소집돼 대책 논의와 더불어 기술위원회의 입장을 정리하고 있는 상태다.

매카시 감독과 올리에 감독의 ‘동반 한국행 무산 가능성’은 이미 이날 오전 영국 공영방송 BBC 인터넷판과 스포츠 전문채널 스키이스포츠 인터넷판을 통해 알려지기 시작했다.

매카시 감독이 올버햄프턴 구단 홈페이지를 통해 팀 잔류를 공식 발표하자 외신들은 “올리에 감독도 한국행에 대해 관심이 없다는 뜻을 밝혔다”는 내용을 보도한 것.

이에따라 축구협회는 급히 상황과약에 나서는 한편 현지에서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가삼현 사무총장을 통해 올리에 감독과 최종 답판에 나섰다.

하지만 올리에 감독마저 최종 협상 단계에서 스스로 물러나면서 축구협회는 내년 2월로 다가온 2010년 남아공월드컵 3차 예선을 코앞에 두고 새로운 사령탑 찾기에 전걸음을 내딛게 됐다.

한편 매카시 감독과 올리에 감독에 이어 제3의 후보로 거론됐던 모르텐 올센(58) 덴마크대표팀 감독과 밀란 마찰라(64) 바레인 대표팀 감독 등을 비롯해 김학범 성남 일화 감독, 장외룡 인천 유나이티드 감독 등이 차기 사령탑 후보군으로 예상된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베어백 호주 대표팀 사령탑

2007 아시안컵 축구대회 직후 사퇴한 짐 베어백(51·사진) 전 한국 축구대표팀 감독이 호주 대표팀 사령탑으로 취임한다.

호주축구연맹(FFA)은 6일(한국시간) “베어백 감독을 2010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때까지 호주대표팀을 이끌 새로운 사령탑으로 결정했다”며 “내년 2월 6일 3차 예선 첫 경기 때부터 지휘봉을 잡게 된다”고 밝혔다.

이로써 베어백 감독은 아시안컵 이후 한국 사령탑에서 물러난 지 4개월여 만에 호주대표팀 사령탑으로 복귀하게 돼 2010년 남아공월드컵 최종예선에서 ‘친정팀’ 한국과 본선행 티켓을 다룰 가능성도 점쳐지게 됐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박지성 “주전경쟁 자신있다”

무릎 부상을 털고 그라운드 복귀를 앞둔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의 박지성(26·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사진)이 주전 경쟁에 대해서도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박지성은 6일(한국시간) 맨유 한국어 홈페이지에 실린 단독 인터뷰에서 먼저 “재활은 상당히 순조롭다. 예상보다 빠르게 그라운드에 복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몸 상태를 전했다.

그는 “부상 당하기 전보다 시간이 많이 주어져 한국에 다녀왔다. 정신적으로 많이 회복하고, 좋은 기분으로 영국으로

팀 홈페이지 인터뷰 실어



돌아와 재활에 집중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맨유가 현재 좋은 성적을 내고 있어 팀원으로서 상당히 기쁘다”고 전한 박

지성은 나니 등의 영입으로 포지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진 상황이지만 “각자 나름의 장점이 있다. 나는 그들과 다른 스타일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때문에 복귀해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리라 생각한다”고 자신있게 말했다.

박지성은 물론 경쟁자들에게 “현재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시즌 초반에 비해 점점 발전하고 있다. 어린 선수들이 앞으로 꾸준히 리그를 겪으면서 영국축구를 경험하다 보면 많은 것을 팬들에게 보여주리라 믿는다”며 애정어린 조언도 잊지 않았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따바레즈 ‘MVP’

K-리그 대상 시상식…용병으로 두번째

따바레즈(24·포항 스틸러스·사진)가 2007년 프로축구 K-리그를 빛낸 최고의 별로 선정됐다.

따바레즈는 6일 오후 광주구 능동 유니버시아드센터에서 열린 ‘2007 삼성 하우젠 K-리그 대상’ 시상식에서 최우수선수(MVP)로 뽑혔다.

따바레즈는 국내 축구담당 기자단 투표를 현장에서 직접 개표한 결과 전체 92표 가운데 63표를 얻어 MVP 트로피와 함께 상금 1천만원을 받았다.

공격형 미드필더 따바레즈는 중원을 지휘하며 15년 만에 포항의 우승을 이끌었고 올 시즌 35경기에 나서 3골13도움을 올리는 맹활약을 펼쳤다.

외국인 선수가 K-리그 MVP로 선정된 건 2004년 수원 공격수 나드손에 이어 두번째다.

올해 최고의 두각을 나타낸 새내기로는 하태균(20·수원 삼성)이 뽑혔다. 하태균은 신인상 개표 결과 전체 92표 가운데 65표를 얻어 트로피와 상금 500만원을 가져갔다.

신인 드래프트 1순위 지명을 받으며 수원에 입단한 하태균은 18경기에서 5골1도움을 기록하며 신인 선수 가운데 가장 뚜렷한 성적을 거뒀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월드컵 4강 그늘에 갇혀있다”

영국 스포츠 기자, 한국축구에 일침

“한국 축구가 새로운 감독을 구하고 있지만 대표팀은 여전히 2002년 한일월드컵 4강 그림자에 갇혀있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의 축구담당 사이먼 번턴 기자가 6일(한국시간) 자신의 블로그(blogs.guardian.co.uk)에 ‘잘못하고 있는 한국축구에 대해(Talk about a bad Korea move)’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매카시 감독이 잔류결정을 내릴 수 밖에 없었던 이유를 나름대로 설명해 눈길을 끌고 있다.

번턴 기자는 “매카시 감독이 한국행을 포기하고 올버햄프턴 잔류를 결정했다”며 “한국이 2010년 남아공월드컵 3차 예선에서 북한, 튀르키예니스탄, 요르단 등 쉬운 상대와 맞붙게 됐는데도 매카시가 감독직을 거부할 것을 비난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 축구는 5년 전(2002년 한일월드컵)보다 나아진 게 없다”며 “그 당시 활약했던 황금세대는 해체됐다. 나이가 들어서도 아니라 잘못된 결정과 자제력을 잃어서다”고 지적했다.

번턴은 2002년을 빛냈던 스타 중에서 김남일, 안정환, 이천수 등의 부진과 아시안컵 축구대표팀 유주파론 등의 예를 상세하게 들어가면서 한국 축구의 퇴보를 꼬집었다.

골프·연도 회원권개 전환기임

록펠러 회원권

골프장 시세/연회	골프장 시세/연회
광주 3,500	광명 900 5,200
남광주 4,300	파인힐스 12,200
승주 8,200	원평 7,400

상당 할인 (062)351-0095